

현대일본어어휘의 혼란상과 교수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김 선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세우려면 주체적인 사상관점, 주체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29페이지)

현시기 외국어언어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대하고 풀어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최근 일본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는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교육수준의 저하로 언어규범이 지켜지지 않고있으며 어휘문법적으로 틀린 어휘들이 정상어휘로 고착되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일본어어휘의 혼란상과 교수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무엇보다먼저 현대일본어어휘의 혼란상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현대일본어어휘의 혼란상은 우선 동음어를 리용한 《감각어》의 리용에서 나타난다.

동음어는 말소리구성은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거나 차이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많은 동음적단어들에 대한 사용에서 문맥을 잘 따져보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

그러나 일부 동음어들은 말소리가 같고 뜻도 비슷한것들이 일부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을 리용하여 최근 일본어에서는 단어의 말소리구성에서 일부 부분을 본래의 단어와 어감상으로 유사한 단어로 바꾸어놓은 이른바 《감각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현대일본어어휘사용에서 나타나고있는 감각어란 일본어의 언어규범에 맞지 않게 단어의 일부를 본뜻과 어감적으로 유사한 동음적단어로 교체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휘들을 말한다.

례: 和氣愛愛 (わきあいあい) 화기애애

우의 단어는 텔레비존광고에 나타났던것으로서 본래말 《藹藹》을 《愛愛》로 바꾸어놓은것이다. 이를테면 《和氣》와 대응되는 《愛愛》를 바꾸어넣어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는 의도에서 제멋대로 만들어낸 선전광고문에 나타난 《새말》이다.

이 광고가 나간 후 젊은 사람들속에서는 리해하기 힘든 《藹藹》보다 감각적으로 뜻이 잘 안겨오는 《愛愛》가 들어간 《和氣愛愛》를 합법적으로 사용할뿐아니라 이러한 어휘들이 《옳은 사용법》으로 언어생활에 고착되어가고있다.

이러한 단어들을 실례들면 다음과 같다.

례: 危機一髮(위기일발) → 危機一發 ×

八つ当たり(다치는대로 화풀이함) → 奴当たり ×

현대일본어어휘의 혼란상은 또한 비론리적인 관용구의 리용에서 나타난다.

관용구는 자유로운 단어결합에 비해 표현성이 풍부하고 독특한 표현방식을 띠고있는

것으로 하여 현대언어생활에서 활발하게 쓰이고있다.

그러나 오늘 일본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는 관용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범한 어휘보다 관용구와 같은 기발한 표현을 추구하던 나머지 언어생활규범과 상식에 어긋나게 비논리적인 관용구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있다.

예: 大国意識をチラチラとかい間見せながら (대국의식을 얼핏얼핏 엿보이면서)

우의 실례에서 《かい間見せる》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논리성이 없는 표현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일본어에 《のぞき見せる》, 《盗み見せる》라는 표현이 없는것처럼 《かい間見せる》라는 표현도 도저히 성립될수 없다.

원래 《かい間見る》를 한자로 표기하면 《垣間見る》인데 그 의미는 《울바자름으로 몰래 들여다보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일본어에서 상용한자를 제정하면서 《垣》가 제외된 결과 표기가 《かい間》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이 단어의 뜻을 《ひそかに》, 《そっと》로 잘 못 이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부 경우에는 《몰래 듣다》의 뜻으로 《かい間聞く》를 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다.

예: 門前雀羅の盛況を呈する(문앞에 참새잡이그물을 칠 정도로 상황을 이루다)

우의 실례는 신문의 기사에 실린것으로서 관용구의 본래의미를 알지 못하는데로부터 제멋대로 만들어낸것이다.

《門前雀羅を張る》의 본래뜻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문앞에 참새잡이그물을 칠 정도로 쓸쓸하다》이다. 만일 우와 같은 의미의 관용구를 찾아쓴다면 《門前市をなす(문앞이 장마당을 이루다)》를 써야 한다.

우의 실례와 같이 관용구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거나 단어를 제멋대로 동음적단어로 바꾸어놓은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 指に足りない一寸法師(손가락만큼도 안되는 난쟁이) ×

指にたる一寸法師(손가락만 한 난쟁이) ○

蛙の顔に小便(개구리 얼굴에 소변누기) ×

かえるの面に水(개구리대가리에 물붓기) ○

우에서 든 실례들은 관용구나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데로부터 잘못 쓴 것이다. 오늘 일본어어휘에는 우와 같이 관습적으로 틀리게 쓰이던 표현이나 어휘들이 옳은것으로 일반화되거나 언어의식에 고착되는것들이 적지 않다.

예: 彼は名譽挽回のため必死に勉強を続けた。(그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를 계속했다.)

彼は万年敗戦投手の汚名挽回のため懸命の努力を続けている。(그는 만년패전투수라는 오명을 만회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고있다.)

우의 실례에서 《名譽》와 《汚名》는 상반되는 뜻을 가지고있으며 더우기 《오명을 만회하다》라는 말은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단어들은 신문기사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표현으로 되고있다.

예: 日本気象庁は汚名挽回のために予報官制度を設けた。

(일본기상청은 오명을 만회하기 위해 예보관제도를 만들었다.)

원래 《挽回》는 《영예롭던 시대의 명예를 되찾다》라는 뜻인데 현대어에서는 《不振挽回(부진만회)》, 《劣勢挽回(열세만회)》, 《不景氣挽回策(불경기만회대책)》와 같이 《나쁜 상

태를 회복하다》는 뜻으로 공공연히 쓰이고있다.

이러한 실례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례: 有卦に入る(운이 트이다) → 受けに入る, 筥に着る(남의 세력에 등대다) → 筥にかかる, 肝煎り(주선, 돌봄) → 肝入り, 傍痛い(배가 아프다) → 片腹痛い

현대일본어어휘사용에서의 혼란상은 또한 비규범적인 한자음읽기에서 나타난다.

일본어한자읽기에는 오음읽기, 한음읽기, 송음읽기, 관용음읽기의 네가지가 있다. 이 네가지 읽기는 한자말이 들어간 시기에 따라 전통적으로 오음으로 읽는것, 오음과 한음을 섞어읽는것, 한음으로 읽는 단어들이 제각기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현대어에 이르러 전통적인 읽기법을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읽은 결과 읽기가 바뀌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그 원인은 한자교육수준의 저하로 읽기규범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읽은것이 점차 사회적으로 고착된데 있다.

례: 十八番(おはこ) → じゅうはちばん, 堪能 カンノウ → タンノウ, 杜撰 ズザン → ズサン, 攪拌 コウハン → カクハン, 捏造 デツゾウ → ネットゾウ, 誇示 コシ → コジ

다음의 한자말은 종전의 읽기법이 점차 새로운 음읽기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것들이다.

례: 衿持 キョウジ → 킨지, 膏盲 코우코우 → 코우모우, 言質 ゲンチ → ゲンシツ, 固執 코시ツ → 코슈우, 緒戦 ショセン → 초센

다음으로 최근시기 일본사람들의 어휘사용에서의 변화동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일본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동향의 하나는 서양어가 대대적으로 쓰이고있는것이다.

16세기부터 일본에 들어가기 시작한 서양어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시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서양어를 모르고서는 언어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널리 쓰이고있다.

2011년에 출판된 《서양어사전(カタカナ語辞典)》(자유민권사)을 통하여 서양어의 량적 구성을 분석해보면 5만여개의 서양어가 들어있으며 그중 언어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쓰이는것만 해도 1만 5 000여개에 이르고있다.

오늘 서양어가 쓰이는 영역을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경제, 상업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이며 그밖에 일상생활과 체육, 오락 등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양어가 범람하고있다.

최근 일본의 서양어사용에서의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전 시대와는 달리 외국어원음에 접근시켜 받아들이는것이다.

명치시대나 2차 세계대전직후에는 서양어를 받아들일 때 일본어의 억양과 어음구성에 맞게 고쳐서 받아들이는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시기에는 될수록 원음에 가깝게 받아들이고있다.

례: manager → マネジャー(관리자)

after care → アフタケア(환자의 건강관리와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계획)

international → インタナショナル(국제주의)

fantastic → ファンタスティック(환상적인)

romantic → ロマンチック(낭만적인)

그러나 일본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익숙되거나 관습화된 서양어는 그대로 쓰고있다.

례: ラジオ(라디오), スタジオ(무대), ショベル(삽)

둘째로, 원어와는 다른 일본식서양어가 널리 만들어져 일상적으로 쓰이고있는것이다.

례: ファンタジック(환상적인) → ファンタスティック

会談がデット・ロックに乗り上げる(회담이 암초에 걸리다)

우의 실례에서 《デット・ロックに乗り上げる》는 《좌초되다》를 서양어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영어에서 암초는 《a sunken rock》 또는 《reef》로서 《죽음의 바위》라는 뜻에서의 《dead rock》라는 말은 없다. 대신 《lock》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교섭이 난관에 부딪치다》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이 단어는 《열쇠》라는 영어 《lock》가 《바위》라는 《rock》로 바뀌운것이라고 볼수 있다.

오늘 일본어에서 널리 쓰이는 《アルバイト(부업)》 역시 《内職》라는 뜻으로 전의되었고 최근에는 《バイト》로 간략화되어 쓰이고있다.

이 단어도 초기에는 《仕事(일), 労働(로동), 作業(작업), 論文(논문)》이라는 뜻이었는데 최근에는 《부업, 용돈벌이》라는 뜻으로 전의되었다.

셋째로, 서양어가 상업화의 도구로 되어 의미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대적으로 쓰이고있는것이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전반기까지 다른 나라에서 영화를 수입하면 일본어로 제목을 번역하여 소개하는것이 일반적이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절대다수의 외국영화가 서양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고있다.

일본의 한 영화보급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1992년 외국영화제목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38%였으나 2002년에는 겨우 13%이고 나머지 87%가 서양어로 되어있다. 문제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제목을 보고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있다.

실례로 2002년 3월에 상영된 《ボーン・アイデンティティー》라는 영화의 본제목을 일본어로 번역하면 《암살자》로 되어야 하겠으나 제목을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서양어로 쓴것을 들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업분야에서 더욱 우습하게 나타나고있다. 상업분야에서는 단순히 서양어만 쓰고있는것이 아니라 선전광고, 상표, 상점이름들을 로마글자로 쓰는것이 일반적 인것으로 되고있다.

일본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나타나고있는 중요한 동향의 다른 하나는 생략현상으로서의 략어, 략자가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언어생활에서 략자, 략어는 언어생활을 보다 간편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언어정보를 전달하거나 지면에 실을 정보량을 늘이려는 경제적측면도 작용하였다고 볼수 있다.

오늘 일본의 신문, 잡지들에서는 일부 전문분야의 사람들이나 알수 있는 략어가 사용되거나 개인들이 제멋대로 략어를 고안해내고있다. 현대일본어에서 략어는 주로 한자어와 서양어가 담당하고있다.

례: 核兵器禁止平和建設国民会議(핵무기금지평화건설국민회의) ⇒ 核禁会議

그러나 략어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가지고있다.

우선 략어가 일반적이며 보편적성질을 전제로 하지 못하는것들이 적지 않은것으로 하여 언어생활에서 혼동을 가져오고있다는것이다.

특히 사회의 일부 계층에서만 사용되거나 한개의 지방에 국한된 좁은 영역에서만 쓰이는 략어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실례로 도쿄에서 《神大》라고 하면 《神奈川大学(가나가와대학)》로 리해하지만 킱끼서 부지역에서는 《神戸大学(고베대학)》으로 리해하게 된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때때로 맞다들리게 되는 《職質(경찰이 하는 단속질문)》, 《公妨(공무집행방해)》, 《冒陳(서두진술)》과 같은 략어들은 법률관계 용어로서 일반성을 띠지 못한다.

한자말기원의 략어는 뜻글자인 한자에 기초하여 본래말을 추측할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 서양어인 경우에는 더욱 문제로 제기된다.

례: レモン・スカッシュ(레몬소다수) → レスカ
 エコノミー・クーポン(절약형승차권) → エック
 テープレコーダー(녹음기) → テレコ

또한 일본어한자규범에 맞지 않는 략자를 많이 쓰고있다는것이다.

실례로 일부 단체들의 신문, 기관지와 같은 출판물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春斗》, 《斗争》와 같은 략자들을 들수 있다. 여기서 《斗》를 《闘》의 략자로 쓰고있는데 《闘》의 의미는 《戦う》이나 《升(ます)》는 용적단위로서 의미상으로 볼 때 완전히 다른 글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완전히 관습화되어 《格斗》, 《奮斗》, 《拳斗》등으로 쓰이고있다.

대표적인 략자들을 실례들면 다음과 같다.

례: 年齢 → 年令, 百歳 → 百才, 道幅 → 道巾, 歴史 → 厂史

다음으로 현대일본어어휘교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외국어교육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언어적현상들을 원리적으로 해명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성과들로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보충하는 한편 여러가지 교수방법을 적극 탐구하여 실천에 구현하여야 한다.

현대일본어어휘교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로, 일본어교수에서 새로 제기되는 어휘들과 언어현상들에 대하여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휘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산물이고 해당 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것만큼 계급적성격을 띠게 된다.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들은 새로운 말이나 이름짓기에서 저들의 계급적리해관계를 추구하여 썩어빠진 생활감정과 퇴폐적인 취미와 지향을 담은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낸다. 일본어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찾아볼수 있는데 실례로 《リスハラ》(구조재조정으로 인해 해고의 대상으로 점찍혀진 사람에 대한 회사측의 구박), 《社用族》(회사의 비용으로 유흥을 즐기는자들), 《リクルってる》(매수공작을 하다), 《活私奉公》(기업이라는 공간을 리용하여 자기자신의 리익을 위한 일을 하는것), 《チャパツ》(자기자신을 파시하고싶어하는 욕구로부터 청소년들속에서 류행된 머리칼전체 혹은 일부분을 밤색으로 물들이는것), 《ボディピアス》(귀뿐만이 아니라 코, 입술, 손가락, 가슴, 배 등 몸전체에 장식을 하는것) 등의 어휘들은 다 부패타락한 일본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발생한 말들이다.

이러한 말들은 부정부패와 썩어빠진 일본현실을 반영한것인것만큼 언어실천에서는

마구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새롭게 제기된 일본어어휘들에 대하여 그 어휘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사회문화적개념에 대한 해설을 깊이있게 진행하는것이다.

새로운 어휘로 등장한 어휘들속에는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적배경을 반영한것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어휘들을 단순히 의미만 해석하여서는 그뒤에 숨은 깊은 뜻을 리해하기 힘들며 따라서 언어실천에서 언어정황과 경우에 맞게 옳바로 사용할수 없다.

실례로 《話はピーマン》(사자고추처럼 속이 비였다는 뜻으로서 결과는 없고 말뿐이라는 표현), 《ガイドライン》(일미방위협력지침), 《特需景気》(특수수요경기), 《環境難民》(환경난민), 《一億総白痴化》(1억총백치화) 등의 어휘들을 들수 있다.

우의 단어들에서 《一億総白痴化》는 일본에서 교양적가치가 없는 저렬한 내용의 텔레비존만 보기때문에 1억이 되는 일본사람들은 다 백치가 될수 있다는 사회적우려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을 돈밖에 모르는 무지몽매한 속물로 만들어 자기들의 통치와 지배에 순종하게 하려는 지배계급의 리해관계와 자본주의방송출판물들의 반동적성격을 반영한 어휘라는것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로, 새로 제기되는 일본어어휘들의 규범적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것이다.

새로운 어휘들가운데는 일본어언어규범에 맞게 만들어진것과 비규범적이지만 사전에 까지 고착되는것, 일정한 기간 쓰이다가 점차 사멸되는것 등이 있다.

여기에서 일본어규범에 맞게 만들어지고 언어생활에 고착되는것들과 비록 일본어언어규범에는 맞지 않지만 점차 쓰이는 과정에 일본사람들의 언어의식에 옳은것으로 인식되어 쓰이는 어휘들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실례로 《やばい》(위험하다)는 본뜻이 《위험하다, 아슬아슬하다》였지만 최근시기에 와서 《멋지다, 훌륭하다》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일본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완전히 고착되어 쓰이고있는데 이러한 어휘들을 규범어휘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めんどい》(성가시다), 《みずい》(싱겁다)와 같이 원어를 생략한 새로운 어휘들은 점차 쇠퇴해져 사멸단계에 있는것으로 하여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최근 일본어어휘사용에서 나타나고있는 동향들을 주체적언어리론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교수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능력있는 인재들로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